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재영솔루텍(049630)

| 하드웨어 / 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노광철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개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5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재영솔루텍(049630)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품제조 전문기업, 휴대폰 부품으로 시장 내 인지도 강화

기업정보(2020/08/03 기준)

대표자	김학권, 김승재
설립일자	1976년 9월 1일
상장일자	2003년 1월 24일
기업규모	보호대상중견기업
업종분류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주요제품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금형

시세정보(2020/08/03 기준)

현재가(원)	74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46
발행주식수(주)	73,257,244
52주 최고가(원)	1,285
52주 최저가(원)	538
외국인지분율(%)	1.65
주요주주	김학권(6.96%)

■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매출 시현

재영솔루텍(주)(이하 ‘동사’)은 1976년 9월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 ‘재영금형정공’으로 개업된 후 1984년 법인 전환하였고, 2000년 현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2020년 3월 말 기준 상시종업원 136명이 근무 중이다.

동사는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 부품, 반도체 IC소켓을 제조하고 있는데 본점, R&D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18 (송도동)에 있고,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충남 아산시에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휴대폰용 카메라 AF 모듈 관련 부문으로, 2019년(제 36 기) 기준 매출액 비중이 72.37%(2020년 1분기 62.15%)에 달한다.

■ 기술개발역량 및 생산역량 확보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품질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에 현지 생산법인을 두어 시장 대응력 높은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전방시장의 소비심리 하락 등 불확실성에 제품 경쟁력으로 대응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 1,191억 원, 2018년 1,286억 원, 2019년 1,33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휴대폰 자동초점(AF) 모듈이 주력제품으로 매출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며 동사의 2020년 1분기 매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95% 감소하여 223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소비심리 회복과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사는 고화소, 고기능성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191	-14.24	-152	-12.77	-363	-30.49	-134.9	-24.24	832.20	-823	336	N/A	4.96
2018	1,286	8.01	31	2.42	22	1.65	8.01	1.38	280.19	46	593	22.15	1.71
2019	1,334	3.70	80	6.00	61	4.47	12.79	3.67	195.22	84	748	12.71	1.43



기업경쟁력

금형기술을 보유한 IT부품 전문제조기업

- 1976년부터 이어온 금형제조기술
(핸드폰 부품, 반도체 IC 소켓 등으로 기술확장)
- 설계, 가공, 조립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 업체
(초소형 렌즈 금형부터 자동차, 가전까지 제작 가능)

특허, 인증을 통한 독자기술 및 품질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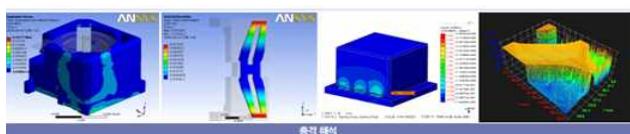
- 1995년부터 플라스틱 응용기술연구소 설립, 운영
- 2005년 JDH연구센터 설립, 운영
- 특허권 54건, 실용신안권 1건, 디자인권 2건 보유
- ISO 9001, ISO 14001 등 품질경영
-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설계역량 및 공정역량 확보로 핵심부품 자체 생산
- 비구면 유리렌즈 등 광학제조기술
(비구면 유리렌즈, 플라스틱 렌즈, 경통)
- AF 액추에이터 제조기술
(전자기 해석, 기구설계, VCM 설계)

보유기술(설계기술)



AF Actuator 종류



주요제품 및 매출비중

■ 주요제품



■ 제품군별 매출 비중

제품군	비중	제품군	비중
나노광학(휴대폰 부품)	73%	금형	24%
부품	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총 합계	100%

시장경쟁력 및 시장변화

One Stop Service - Total Solution

■ 전략적 해외생산기지 등 높은 공정능력 확보



■ 휴대폰 핵심부품으로 자리 잡은 카메라 모듈의 AF 기술확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변화

- 2020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동기 대비 13% 감소
- 1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 온라인채널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

최근 변동사항

삼성전자 A시리즈에 제품 공급

- 삼성 트리플 카메라폰 A7, 쿼드러플 A9용 제품 양산
- 64백만화소급 AF 모듈 양산화

공정능력 및 제품 경쟁력 확대

- BW발행으로 유동성 확보
- 생산역량 강화에 자금 투자
 - 베트남 VINA 공장증설
-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연구개발 지속
 - 고화소화, 초슬림화, 고기능화 기술



I. 기업현황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IT부품 제조기업, 재영솔루텍

동사는 금형, 휴대폰 부품, 반도체 IC 소켓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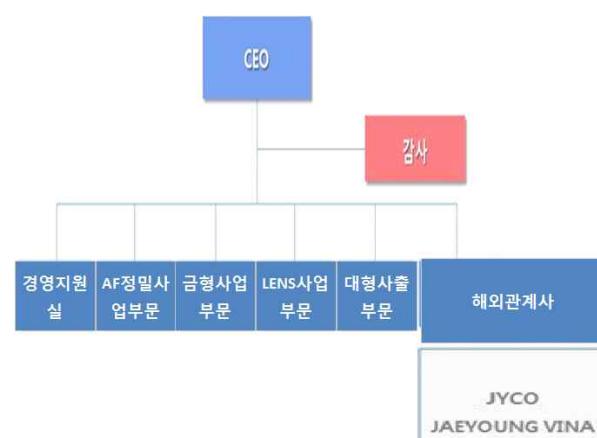
재영솔루텍(주) (이하 ‘동사’)은 1976년 9월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 ‘재영금형정공’으로 개업된 후 1984년 법인 전환하였고, 2000년 현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2020년 3월 말 기준 상시종업원 136명이 근무 중이다.

동사는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 부품, 반도체 IC소켓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본점, R&D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별로 118 (송도동)에 있고,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충남 아산시에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는 종속기업으로 JYCO CO.,LTD(일본), 재영VINA(베트남), 재영솔루텍 개성(주)(북한)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 57%, 100%,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동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김학권으로 동사의 지분 7.00%를 보유하고 있고, 각자 대표이사 김승재는 동사의 지분 1.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조직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한국기업데이터 재가공

표 1. 동사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김학권	7.00
최영순	0.22
김승재	1.80
박규섭	0.01
재영아이텍(주)	3.49
기타	87.48
합계	100.00

*출처: 동사 1분기보고서(2020)



■ 대표이사 정보

동사의 각자 대표이사 김학권(1946년생, 남)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재영금 형정공사(1976년~1984년, 최종직위:대표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4년 12월 동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각자 대표이사 김승재(1977년생, 남)는 김학권의 자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네모파트너즈, 동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영아이텍(주)(2017년~, 최종직위:대표이사)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사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기술역량

동사는 금형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는 등 설계, 가공, 제조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제조업체로 초소형 렌즈 금형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자동차 바디, 도어와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본체와 부품, 팔레트 등 대형 금형까지 제작이 가능한데 금형 관련 주요 보유기술은 고광택 금형기술, 직가공 미세홀, STACK MOLD, E-MOLD, 2색 사출(2K mold)등의 신기술이며, 독자적 금형생산 통합시스템도 개발,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부품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전략적 생산기지와 금형 솔루션 제공기지를 목적으로 JYCO CO.,LTD(일본법인), 재영VINA(베트남법인), 재영솔루텍 개성(주)(북한)을 설립하였다.

■ 주요 사업부문

동사의 주력 부문은 나노광학(휴대폰용 카메라 AF 모듈 등)으로, 2019년 (제 36 기) 기준 매출액 비중이 72.37%(2020년 1분기 62.15%)에 달한다. 금형부문은 2019년 (제 36 기) 기준 매출액 비중이 24.39%(2020년 1분기 35.15%)이다.

그림 2. 동사 주요 제품

렌즈	렌즈UNIT	A/F Module
초정밀 부품금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div> <div></div> <div></div> </div>		



*출처: 동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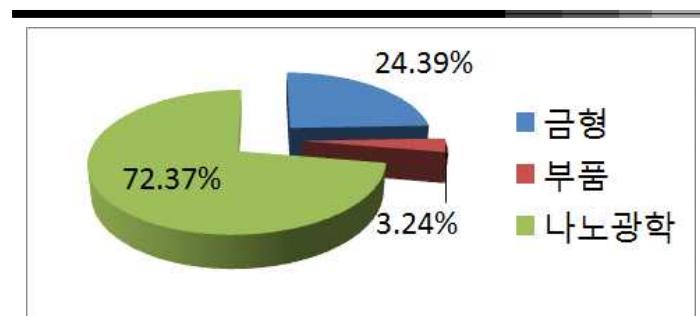
■ 매출 비중

동사의 사업부문 중 나노광학부문(휴대폰용 모듈 등)의 매출비중은 2017년 48%에서 2018년 70%, 2019년 72%로 증가하였는데, 동사는 금형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노력이 있었다. 동사 금형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은 완성품업체의 생산계획에 의한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30일 내외의 단기 발주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사의 2020년 1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2019년 누적기준 약 1,3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 1분기에는 약 22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동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20년 1분기 37.82%(2019년 40.49%)이고 주요 판매처는 (주)나무가, (주)엠씨넥스, (주)파워로직스, (주)캠시스,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주)로 주요 5대 판매처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9.6% 수준이다.

표 2. 제품군별 매출 비중

제품군	매출 비중
금형	24.39%
부품	3.24%
나노광학(휴대폰 모듈 등)	72.37%
합계	10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II. 시장 동향

주력제품인 카메라 AF 모듈의 전방산업 성장은 5G가 주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 추세이나, 5세대 이동통신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하나의 스마트폰에 다수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며 카메라 부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감소추세, 5세대 이동통신 5G 시장의 빠른 성장

동사 제품의 전방시장인 글로벌 이동통신 단말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 차지하는 스마트 폰 분야가 보급 포화와 신규 수요를 이끌 혁신 부채로 구조적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시장 전망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2019년 판매 성장률은 전년대비 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품목편)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출하금액은 2013년 451,202억 원에서 2017년 198,707억 원으로 연평균 18.54% 감소하였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4G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의 등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변수로 떠올랐으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5G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이 2억 3,440만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1,860만대와 비교해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의 변화와 각 완제품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 휴대폰용 카메라 부품의 전방산업

구분	카메라 부품 제조업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휴대용 전화기 산업
제품			
업체	세코닉스, 플러스칩, 마이크로옵틱스, 자화전자, 파트론	엘지이노텍, 파워로직스, 나무가, 삼성전기, 파트론, 엠파이어, 캠시스, 자화전자,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코렌, 옵트론텍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19)



■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기능 고도화와 멀티플 카메라 장착 수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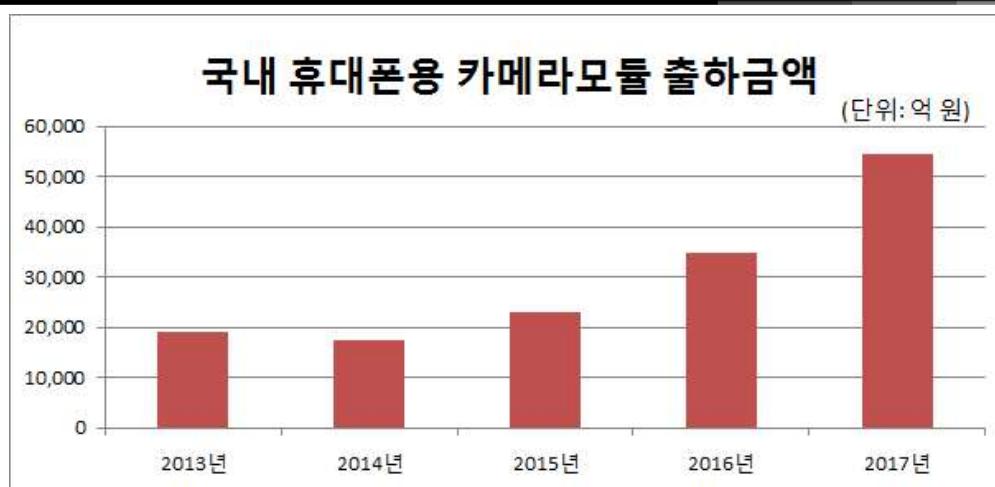
스마트폰의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이 고화소화 되고 있고, AF(자동초점), OIS(광학 손 떨림 방지 기능) 등 화질 개선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며, 휴대폰 한 면에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하는 멀티플 카메라가 채택되는 추세다.

2018년 처음 스마트폰에 도입된 트리플(3개) 카메라가 스마트폰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31%를 차지함으로써 듀얼(2개) 카메라 스마트폰 점유율 30%를 상회하였다. 이밖에 쿼드(4개) 카메라의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LG이노텍, 파워로직스, 나무가, 삼성전기, 파트론, 엠씨네스, 캠시스, 자화전자,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코렌, 옵트론텍 등이 참여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출하금액은 2013년 19,034억 원에서 2017년 54,670 억 원으로 연평균 30.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적용한 응용 분야로 자동차/드론/AR/VR 등 새로운 기기에 카메라 모듈 장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 국내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출하금액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III. 기술분석

광학계 설계, 금형제작, AF 모듈조립 기술 내재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재영솔루텍

동사는 비구면 유리렌즈 제조기술과 생산기반을 토대로 휴대폰용 비구면 유리, 플라스틱 렌즈, 휴대폰 카메라용 AF 모듈을 생산하는 등 고화소, 고기능 광학 모듈에서 “One Stop Service – Total Solution” 을 제공하며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휴대폰 핵심부품으로서의 카메라 모듈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은 정지 화면,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휴대폰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조립이 간단하도록 일체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휴대폰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휴대폰 이용자가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부가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이며 스마트 폰 시장의 차별화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에는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용화된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 및 품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광학렌즈, CMOS 이미지 센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능이 개선되었다.

최근 스마트폰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켜 이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영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미지 센서, 렌즈, 액추에이터, 경통, 필터, FPCB,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센서는 각 픽셀에서 발생한 아날로그 형태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신호처리 프로세서(ISP)로 전달하고 ISP는 영상 신호의 포맷을 기기에 맞춰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는 기기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화질 개선과 특정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ISP를 거친 영상 신호는 커넥터를 통해 특정 포맷으로 휴대 기기에 전달되고, 촬영한 이미지가 기기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현되는 단계로 사용자에게 보이게 된다.

그림 4. 삼성 Galaxy S20 5G 구성 (6번이 카메라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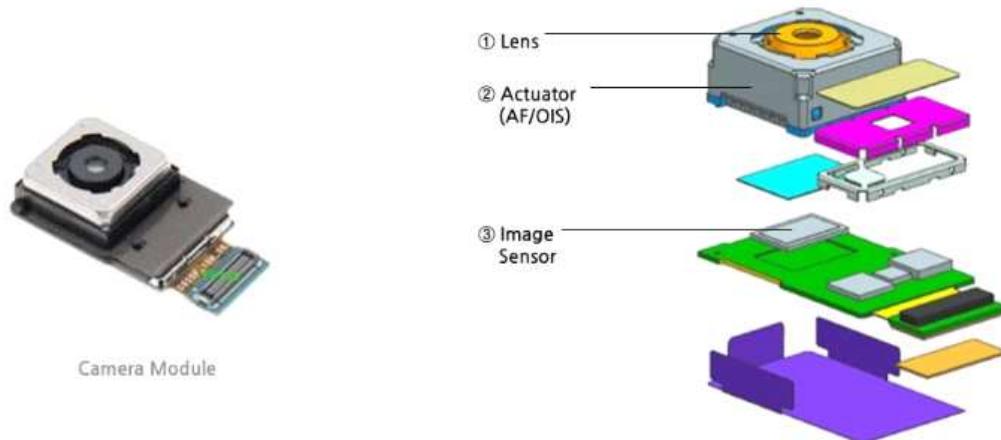


*출처: iFixit



■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기술동향

그림 5. 카메라 모듈의 구성



*출처: 삼성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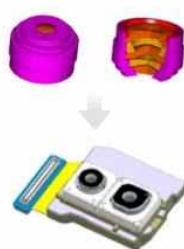
동사의 주요 제품은 휴대폰 카메라 AF(Auto Focus, 자동 초점) 모듈로, AF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하는 카메라의 기능을 말하는데 동사는 최근 휴대폰은 고사양의 카메라를 채택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기술발전 동향

- ① 고화소화
- ② 슬림화
- ③ 스마트화
- ④ 고기능(AF, OIS, IRIS, 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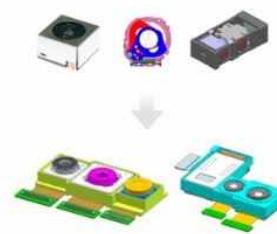
그림 6. 카메라 모듈의 최신 기술

高해상력 Slim Lens 기술
- 非구면 多枚 Lens 설계
- 고정밀 금형/사출/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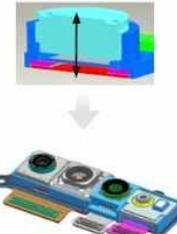
Dual Camera
Bokeh, 광학줌

고성능 소형 Actuator 기술
- AF/OIS, Iris, Zoom 설계
- 이틀 Free, 자동화 조립



Triple Camera
Bokeh, 광학줌, 초광각 촬영

부품 & PKG 박형화 기술
- Slim 렌즈, Actuator
- Slim PKG 설계/제조



Quadruple Camera
Bokeh, 광학줌, 초광각, 3D 센싱

*출처: 삼성전기



■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로 자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재영솔루텍

동사는 1995년부터 공인된 연구개발 조직인 플라스틱 응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추가적인 JDH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전담인력으로 28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구개발의 성과로 특허권 54건, 실용신안권 1건, 디자인권 2건, ISO 9001, ISO 14001, 세계일류상품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영실상 수상이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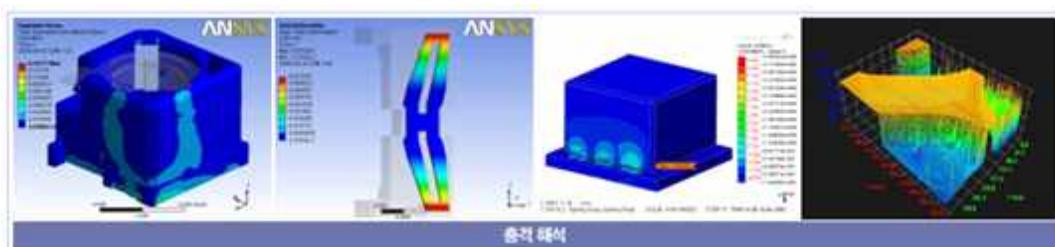
표 4. 동사의 연구개발비 투자

(단위 : 천원)				
과 목	제 37기 1분기	제 36 기	제 35 기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564,468	2,929,187	2,416,923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2.5%	2.2%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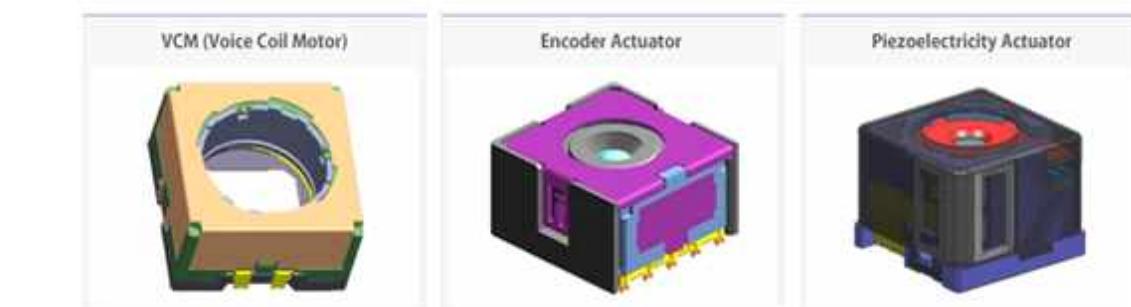
*출처: 동사 2020년 1분기보고서

동사는 카메라 모듈이 고기능화되고 휴대폰 외에 차량용, 드론용으로도 용도가 확장되는 시장 현황에 발맞추어 카메라 모듈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인 자석의 수량을 줄이면서도 동등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액추에이터를 경박단소화할 수 있으며 자력 영향을 감소시켜 주변 기기의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렌즈 포커싱 액추에이터’,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전후방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카메라용 광각 렌즈 시스템인 ‘차량의 카메라용 광각 렌즈 시스템’의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그림 7. 동사 렌즈/AF 사업부 연구개발(설계 기술)



* AF Actuator 종류



*출처: 동사 홈페이지



그림 8. 동사 렌즈/AF 사업부 연구개발(공정 기술)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는 개발 당시 해당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기술적 권리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처럼 경쟁업체도 과거 2000년대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휴대폰용 카메라 분야의 적극적 기술개발을 통해 카메라 산업을 이끌어왔는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 내장되는 카메라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동차용 카메라 출원은 3배(23→64건), 드론용 카메라 출원은 4배(14→55건) 가까이 많이 늘어난 반면, 스마트폰용 카메라 분야는 같은 기간 1.3배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기술의 적용분야 확대가 요구되는 시장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동사의 기술개발이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사는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품 및 모듈 신제품으로 사업다각화를 전개하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객 밀착형, 고기능 솔루션을 자체 개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휴대폰, 금형산업에서 매출처 확대를 위해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자동 초점 조절 액추에이터 적용 AF 모듈의 수요증가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IV. 재무분석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가 매출증가 및 영업이익 상승을 주도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이 포함된 나노광학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며 외형성장세를 이끌고 있으며 전방 시장의 소비가 위축된 현황에서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 매출증가세를 보이며 영업이익률도 동반 상승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 1,191억 원, 2018년 1,286억 원, 2019년 1,33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IT흐름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휴대폰 자동초점(AF) 모듈 공급물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도 2017년 적자에서 2018년 31억 원(영업이익률 2.42%)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19년 80억 원(영업이익률 6.00%)을 기록하였다.

표 5. 동사의 연간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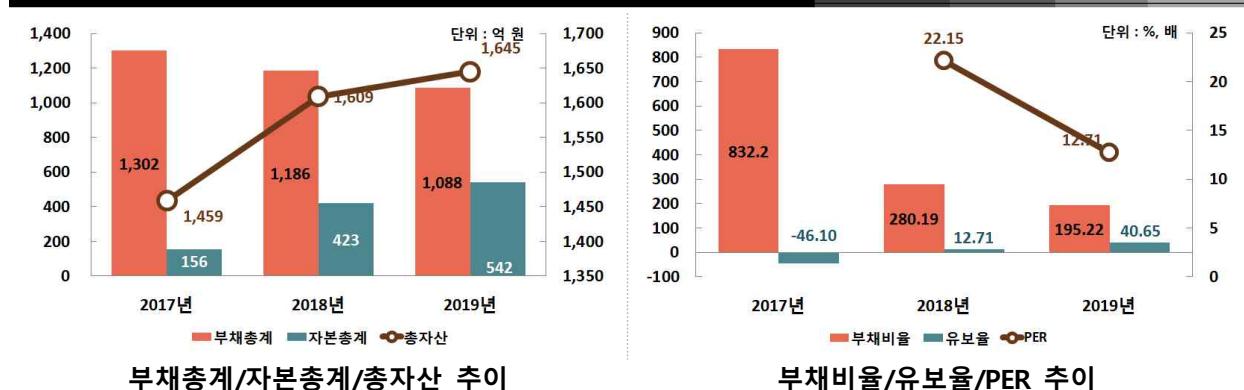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재무안정성 지속 개선 중

2020년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80.67%로 2019년 195.22%, 2018년 말 280.19%, 2017년 832.20% 대비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또한, 자본유보율은 2018년 이후 양(+)의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말 기준 40.65%, 2020년 3월 말 기준 43.91%로 증가세에 있으나, 유동비율은 95.34%, 자기자본비율은 35.27%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PER은 2019년 말 12.71배에서 2020년 3월 말 10.66배로 낮아진 상황으로 10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표 6. 동사의 연간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매출 및 영업이익 견인제품은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인 나노광학 부문

동사의 사업부문은 금형부문, 부품부문, 나노광학부문(휴대폰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에 해당하는 금형과 부품부문은 최근 3년간 매출 감소추세에 있으나 나노광학부문은 2017년 637억 원, 2018년 903억 원, 2019년 965억 원으로 외형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08%, 70.23%, 72.37%로 증가하였다. 동사의 영업이익 또한 2018년, 2019년 나노광학부문이 흑자를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한 금형부문과 부품부문의 실적악화를 상쇄하고 있다.

표 7. 동사 사업부문별 매출실적(제 36기 = 2019년)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단위 : 천원)				
			제 36 기	제 35 기	제 34 기		
금 형	제품	금 형	수출	18,669,134	18,930,712		
			내수	13,862,060	12,998,209		
			합계	32,531,194	31,928,921		
부 품	제품 및 상품	단말기, 전자, 전기, 광학 부품 반도체 검사용 소켓	수출	518,940	1,714,168		
			내수	3,802,011	4,640,869		
			합계	4,320,951	6,355,037		
나노 광학		AF 모듈 등	수출	34,810,136	29,501,419		
			내수	61,695,695	60,813,171		
			합계	96,505,831	90,314,590		
합 계			수출	53,998,210	50,146,299		
			내수	79,359,766	78,452,249		
			합계	133,357,976	128,598,548		
					132,551,844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2020년 1분기 흑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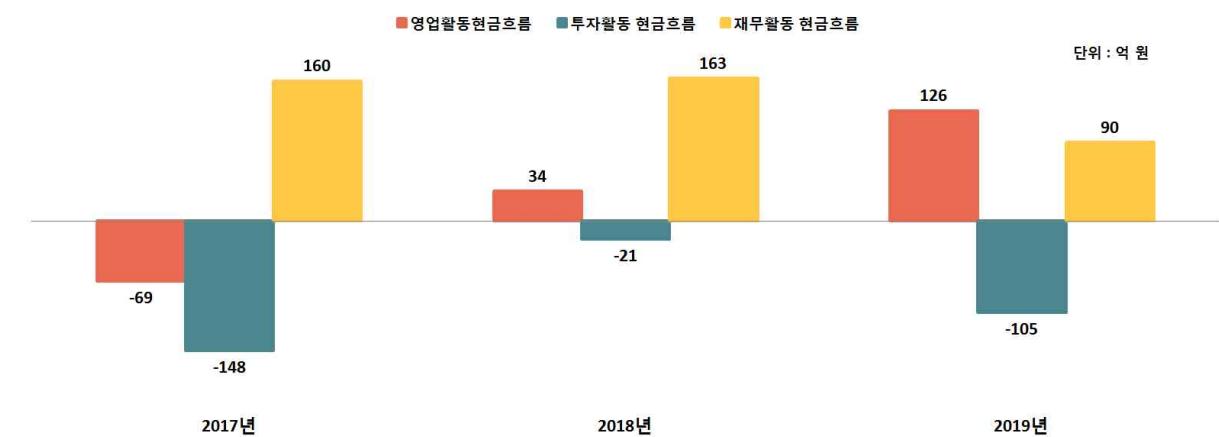
동사의 2020년 1분기 매출실적은 주력인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 등 나노광학부문의 실적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5% 감소하여 22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감소 및 고정비 부담 심화로 영업이익도 80.15% 감소한 5억 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주력사업인 나노광학부문의 이익축소 폭을 최소화하였고, 동사의 모태사업이나 수년째 적자 지속된 금형부문의 매출처 확대를 통해 흑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향후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면 동사의 영업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4분기 연속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최근 3년간 동사의 연간 누적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다소 상회하는 가운데,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연속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과 증자, 사채발행 등으로 유입된 현금으로 유형자산의 취득 등 투자활동 현금유출에 충당하는 현금흐름을 보였다. 2019년 말 기준 및 현금성 자산은 2019년 기초 대비 109억 원 증가한 343억 원이고, 2020년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초 대비 11억 원 감소한 332억 원이다.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유동화가 가능하며 코스닥 상장사로써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화소 휴대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개발로 멀티플 카메라 시장 내 경쟁력 강화

동사는 1976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금형제조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통해 나노광학부문의 주력제품인 휴대폰 카메라용 AF 모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 고화소, 고기능의 AF 모듈 지속 개발 중

동사는 1976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금형제조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노광학부문의 주력제품인 휴대폰 카메라용 5MP(5Mega Pixels, 5백만 화소), 8MP, 13MP, 16MP, 24MP 등 다양한 규격의 AF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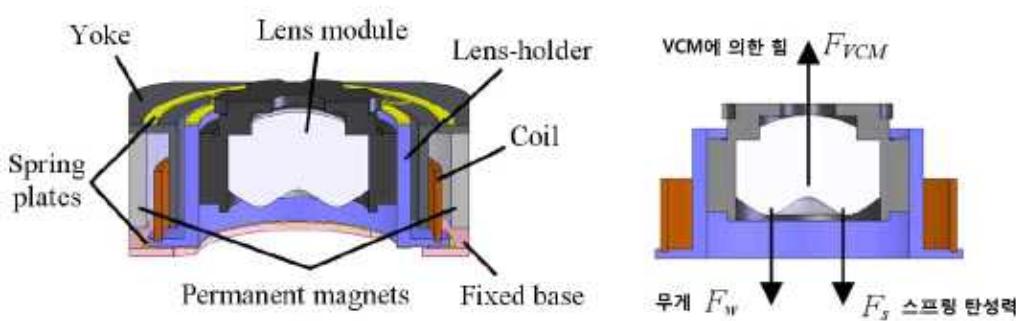
IT환경에서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VCM방식의 16MP, 24MP 화소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였고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높이 4.1mm를 구현하여 슬림화와 경량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13MP, 16MP 제품의 높이를 더욱 슬림하게 하고 3.5mm 높이의 48MP 제품을 개발하여 멀티플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슬림, 초고화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64MP 제품까지 양산화하였고, 고기능성 제품(Encorder 방식, OIS(손 떨림 방지 기능) 등)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동화 공정을 고려하여 제조원가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발을 진행하면서 고도화된 선진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제품과의 품질 연관성,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금형 설계 자동화 CAD인 RAMDES(Rapid Advanced Mold Design Export System, 인공지능형 금형 설계 시스템)의 연구개발분야 확장을 통해 설계 데이터를 전산 서버에 저장하여 장소의 제약을 탈피하고 설계속도를 향상하고 있다.

그림 9. VCM(Voice Coil Motor)의 구조 및 작용



*출처: Optics Express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계 스마트폰의 출하량 감소 전망

시장조사기업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10% 가량 줄어든 13억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출하량은 줄었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 환경은 여전히 치열한데, 올해 가장 큰 기술적 이슈는 5G와 카메라 기능으로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은 촬영 렌즈 개수를 늘려 화질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판매량은 지난 10년 동안 8배 증가해 2019년에는 45억대로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출하한 전 세계 스마트폰에는 평균 3.5개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는데, 후면 카메라 렌즈 3개, 전면 카메라 1개를 갖춘 스마트폰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삼성은 물론 샤오미, 오포, 화웨이 등 대부분 제조사에서 쿼드(4개) 카메라를 채택한 고급형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전체 스마트폰 중 쿼드 카메라 탑재 스마트폰 비중이 올 1분기 20%를 넘었다.

그림 10. 트리플(3개) 카메라를 갖춘 갤럭시 A7, 쿼드(4개) A9



*출처: 삼성전자

■ 전방시장인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심리와 영업전략에 의존 전망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의 멀티화, 슬림화, 고화소화로 빠르게 기술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 AF 모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시장에 대응하며 최근 3년간 외형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동사의 2020년 1분기 매출실적은 주력인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 등 나노광학부문의 실적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5% 감소하여 22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향후 동사의 실적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전략, 시장별 영업전략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 해당없음